

뉴스 사회

"바이오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웬말"

안동 풍산읍 저지대책위, 시청 앞에서 반대 궐기대회

오종명 기자 oj2171@kyongbuk.com

2015년 12월 08일 화요일 제4면



▲ 안동시 풍천면 주민 170여명이 7일 오전 안동시청 정문에서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입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안동시 풍산읍 주민들로 구성된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 저지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안동시청 앞에서 풍산읍 바이오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 입주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책위는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면 업체는 이윤을 위해 지역과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처리할 것이 분명한 만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신청을 한 폐기물 처리업체인 B사는 안동시가 허가하지 않자, 현재 안동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안동시가 패소했고, 2심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안동시는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야 할 정도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를 허가하지 않았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